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남북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이 만난 사람

《이치의학사전》 편찬가
이병태 박사

언어학자나 사전학자가 아니면서도 40여 년에 걸친 연구와 노력으로 2,100쪽이 넘는 방대한 사전을 편찬한 이가 있다. 치의학 용어 등 약 16만 개의 어휘를 담아 《이치의학사전》을 펴낸 이병태 의학 박사. 광화문 이병태치과 진료실에서 만나 그의 사전 편찬 이야기를 들었다. 치의학과 의학 분야 용어는 물론이고 사회, 철학, 역사, 문학 분야에서까지 치의학과 관련된 어휘를 조사하여 실은 그의 사전이 치의학을 공부하고 있는 후학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



먼저, 박사님이 최근 편찬한 《이치의학사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치의학사전》에는 치의학, 의학 용어 등 16만 여 어휘가 수록돼 있습니다. 기존 사전들에 비해 내용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하며 남의 한의학과 북의 고려의학, 약학 등 치의학과 인접한 분야의 용어,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과학 분야 용어 그리고 역사, 철학,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치의학과 관련된 용어를 관찰하고 골라내어 최대한 폭넓게 실었습니다.

또한 이미 사라지거나 소멸된 학설, 제도, 기구, 약품, 치과, 기자재 용어와 때로는 그림, 사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치의학 분야에서 출판된 서적, 잡지, 논문, 보고서, 해설서 등 다양한 문헌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쓰인 말들을 골라 실었습니다.

언어학자가 아니면서도 개인 차원에서 16만 어휘나 되는 사전을 편찬 했다는 점에서 매우 놀랍습니다. 특별히 사전을 편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편찬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포켓영한사전》을 접했는데 “이런 것을 사람이 만들었나”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경외감이 들었죠. 그때 언젠가는 내 손으로 꼭 사전을 편찬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대 치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일본과 독일의 원서를 요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쓰기에만 바빴어요. 그때는 책방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과학사전이 안 보일 때였죠.

1964년경부터는 미국에서 발간된 원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치의학 용어에 막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치의학 사전이 없는 게 원통했죠. 그래서 치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1976년에 미군들이 쓰는 치과 매뉴얼을 보강하여 각종 자료와 사진을 넣은 《치과보철기공학》이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을 펴낼 때도 치의학 용어를 찾아볼 만한 사전이 없어 간단한 치과 용어를 설명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오랫동안 품은 사전 편찬의 꿈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1차로 416쪽의 《치과의학사전》을 발간했죠. 하지만 1995년도에 좀 더 내실 있는 사전을 편찬하기로 결심하고 《치과의학사전》을 스스로 절판 조치하고 시중에 있던 사전을 회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들인 치과 의사 이창규 박사를 공동 편저자로 참여시켜 약 20년 동안 편찬 작업을 한 끝에 지금의 치의학 용어와 치의학 인접 학문 용어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이치의학사전》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치의학사전》은 다른 치의학 사전에서는 볼 수 없는 치의학 용어와 의학 용어, 치의학 장비, 치의학 인물 등을 망라한 새로운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치의학사전》은 1982년에 낸 《치과의학사전》의 증보판인데요. 초판인 《치과의학사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 《치과의학사전》은 국내 처음으로 사전답게 기획 출판된 치의학 사전입니다. 그 당시 치과 용어가 영어와 독일어, 일본어로 혼합된 채 혼란을 빚고 있어 치과 용어를 정리한 사전이었죠.

그 후로부터 32년이 흘러 증보판인 《이치의학사전》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사전은 1982년에 발간한 《치과의학사전》을 단순히 보완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편저자 이창규 박사는 《치과의학사전》의 규모가 한강대학교라면 2014년 《이치의학사전》은 인천대학교로 비교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사전 분량이 416쪽에서 2,164쪽으로 표제어가 대폭 늘어났고, 초판에는 하나도 없던 삽화가 254개, 사진 145개, 도표 174개 등 총 573개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또 초판 발행 후 30년 넘게 치과 장비와 도구, 치과의학 등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어휘들도 이번 사전에 반영했습니다. 2013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와 공로까지 게재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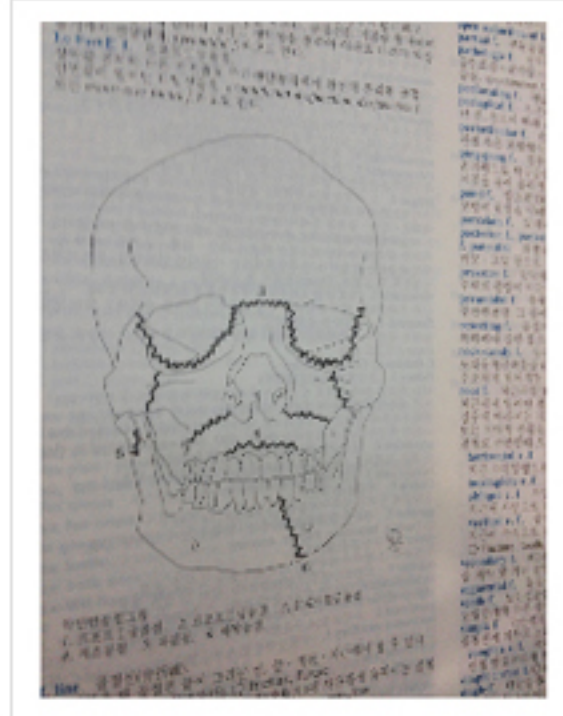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이치의학사전》은 다른 치의학 사전에서는 볼 수 없는 치의학 용어와 의학 용어, 치의학 장비, 치의학 인물 등을 망라한 새로운 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치의학사전》은 2,164쪽으로 그 안에는 방대한 양의 치의학 관련 용어들이 실려 있는데요. 다른 치의학 용어 사전들과 비교할 때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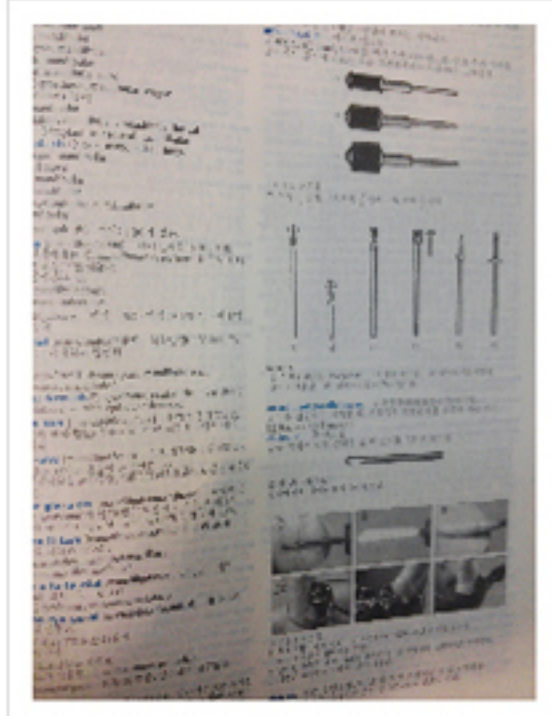
이 사전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의학 용어 이외에도 이미 사라지거나 소멸된 학설, 제도, 기구, 약품, 치과 기자재의 단어도 포함시켰어요. 또한 다른 치의학 사전에는 없는 치의학과 관련된 역사, 철학, 문학, 사회, 인물 등의 용어들도 실려 있죠. 특히 인물들의 어휘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과거의 유명한 치과의사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이름을 딴 기구도 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물도 표제어로 올렸는데 그는 화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해부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박물학자로 알려진 드 쇼쉬르가 산악인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찾아 이 사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 구성을 시도했는데요. 예를 들면 용어 설명이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용어나 단어가 겹치며 분절되지 않고 단어나 용어가 통째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또 250여 개의 삽화도 직접 그려 사용자가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삽화는 처음에는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그림은 예쁘게 잘 그렸는데 본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삽화도 그려 넣고 사진도 찍어 넣게 되었습니다.

표제어는 ‘영어-우리말-한자’ 순서로 사전에 실어 영어사전이나 국어사전, 옥편을 따로 찾아보지 않고 이 사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만든 것도 《이치의학사전》의 특징입니다.



▲ 편저자가 직접 그린 '안면골절 분류' 그림



▲ 광택 내는 소기구들 사진

“이 사전은 제 삶의 결정체입니다. 용어 하나하나에 정확하고 명확한 의미를 담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찾아 다시 쓰고 고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40년이란 기간 동안 《치의학사전》 편찬에 매진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진행한 만큼 편찬하시면서 힘든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업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요?

이 사전은 제 삶의 결정체입니다. 용어 하나하나에 정확하고 명확한 의미를 담기 위해 수많은 자료를 찾아 다시 쓰고 고치는 작업을 반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해 책방에 들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은 자료의 양이 어느덧 칠십살과 치과 집무실 등 방 3개를 꽉 채웠습니다.

개인이 편찬을 하다 보니 편찬 작업하면서 생기는 의문점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치의학 외의 어휘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하다보니 정신과와 같은 다른 분야의 용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학적 증상과 소견이 다양하여 이해하기도 어렵고 자문 시간이 오래 걸려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북에서 사용하는 치과 용어도 수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과 북의 치과 체계와 용어는 어떻게 다른 지, 또 다른 용어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치과 의료 체계마저 남측의 치의학(Dentistry)과 북측의 구강의학(Stomatology)으로 달라졌는데요. 치과 대학 등 치의학 교육제도와 치과 의료제도 역시 다르며 용어까지 미묘적이거나 생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을 진료할 때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고, 치과 용어마저 다르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치과 용어 차이 이해를 위해 2006년 9월에는 《북한구강의학용어집》을 펴냈습니다. 《이치의학사전》에도 북한 어휘들을 수록했는데 이때는 2003년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구입한 《영조 의학대사전》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북에서 사용하는 치의학 용어를 몇 가지만 소개하면 ‘총치’를 ‘이삭기’라고 하고, ‘잇몸 염증’을 ‘잇몸 병’이라고 합니다.

남북치의학교류협회는 2005년부터 방북하여 북한 주민들의 치과 치료에 힘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기부터 공동대표를 맡아 협회에 대한 애정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남북치의학교류협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치의학교류협회는 치의학 교류와 북한 주민 진료를 위해 66명의 치과의사가 참여하여 200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실제 북한 주민 치과 진료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 강원도 고성에 ‘온정민병원’이 있는데 그 당시 병원에는 구강과는 있었지만 치과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금강산온정민병원 치과 진료소’를 개설하여 협회 회원들이 직접 북한 주민의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격주로 매번 4명의 치과의사들이 방북하는 방식으로 총 58차례에 걸쳐 북한 주민 1,240명을 치료하였습니다.

2008년 8월에는 금강산온정민병원 치과 진료소에 제1, 제2 치과 기공실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11월에는 금강산 지역이 아닌 평양 중앙적십자병원 치과에도 시설을 지원 했고, 2009년 2월에는 남강산병원에서 치과 진료소를 열어 현대 마산 직원들을 진료하였습니다.

남북치의학교류협회에서는 북한의 치의학 교육과 구강보건학생 및 예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북의 진료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오면 의료 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치의학 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의학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내용 보완 등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간된 《이치의학사전》은 영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수록된 어휘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 가나다 순서대로 찾아 볼 수 있는 새로운 한글 인덱스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학 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새롭게 생기는 용어도 계속 보완해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겨레말큰사전》 편찬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 국어를 배우고 써오면서 그리고 사전을 편찬하면서 느낀 것은 맞춤법이 자주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에 가까운 쪽으로 맞춤법이 확고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사이시옷’을 예로 들면, 남과 북 표기가 다르지 않게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사이시옷’을 없앴으면 합니다.

또 한편 남과 북의 자모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겨레말큰사전》에서 이런 것이 결정되면 미리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치의학사전》의 인덱스도 《겨레말큰사전》과 그 자모 순서에 따라 정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이 남북 간에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우리말 돋보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우리말 돋보기

아름다운 말은 쉽다

- 한국말사전이 살릴 말

_ 최종규 / 작가

흔히 ‘국어사전’을 말하고, 학교에서는 ‘국어’를 가르칩니다. 나라를 다스린다는 분은 으레 ‘국민’을 얘기합니다. 한자로 ‘國-’을 붙이는 한자말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사람이 ‘國-’을 붙인 낱말을 쓰는 얼마 안 됩니다. 아주 마땅합니다. 한국사람으로서 이런 낱말을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한복·한식·한옥’ 같은 낱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옷·밥·집’입니다.

‘國-’붙이 낱말 가운데 ‘국민학교’만큼은 몹시 어렵게 ‘초등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국민(國民)’이라는 한자말에 갖든 슬프며 아픈 생채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國語’라는 한자말을 그대로 쓰지만, 이 낱말을 앞으로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어른들은 ‘국민’이라는 낱말을 털어냈는데, 말과 글을 다루는 어른들은 언제쯤 ‘국어’라는 낱말을 털 수 있을까요.

‘國歌·國鳥·國花’ 같은 낱말을 곧바로 알아듣는 아이는 드뭅니다. 어른도 곧잘 헛갈릴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낱말을 쓰더라도 한국은 한국말이 있으니 이런 낱말을 ‘나라노래·나라새·나라꽃(나랏노래·나랏새·나랏꽃)’으로 새롭게 지어서 쓸 줄 알아야 하고, 이런 낱말을 사전에 담을 수 있어야 해요. 한국말을 담은 한국말사전은 한자말을 담은 사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전들은 한국말을 슬기롭게 담거나 한국말을 알뜰살뜰 가꾸는 길하고는 동떨어집니다.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며 옆에 놓는 사전조차 교과서에 실은 낱말을 풀이하는 참고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어린이가 스스로 한국말을 슬기롭게 깨우치면서 말빛을 가꾸도록 돕지 못합니다.



푸성귀나 남새나 나물을 제대로 살피는 어른이나 아이는 몇쯤 될까 궁금합니다. 국립국어원 사전 말풀이를 살피면, ‘푸성귀’는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하고, ‘남새’는 “= 채소(菜蔬)”라 하며, ‘나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채소(菜蔬)’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이라 하고, ‘야채(野菜)’는 “(1)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 (2) ‘채소(菜蔬)’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야채’는 ‘야키’라는 일본말에서 비롯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살피면, 풀을 먹는(채식) 사람이건 풀을 안 먹는 사람이건, 풀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모릅니다. 말을 다루는 사전도 이를 옳게 가누지 못합니다.

사람이 따로 길러서 먹는 풀일 때에 ‘남새’입니다. 스스로 돋는 풀일 때에 ‘나물’입니다. 남새와 나물을 아우를 때에 ‘푸성귀’입니다. 풀을 먹는 사람, 곧 ‘채식’이란 “푸성귀 먹기”이거나 “풀 먹기”이거나 “풀밥 먹기”예요. 이러한 얼거리를 살핀다면, ‘채식(菜食)’이라는 말을 털면서 ‘풀먹기’나 ‘풀밥’ 같은 낱말을 지을 수 있고, 학자들이 먼저 이런 낱말을 사전에 담을 수 있어요.

만화영화 <백설공주> 를 아이들과 보던 결님이 문득 ‘하얀눈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 살과 네 살인 아이들한테는 ‘백설공주’가 어떤 이름이고 뜻인지 알려주기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내어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요즘은 ‘에코백(ECO-BAG)’이 널리 퍼지지만, 나는 늘 ‘천바구니’를 챙깁니다. 시골 읍내에는 없으나 도시로 마실을 가면 으레 ‘네일아트’를 하는 가게를 봅니다. 이런 가게를 스치고 지나가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저곳에서는 손톱에 꽃이 피도록 하는구나 하고, ‘손톱꽃’이라고 할까요, ‘손톱빛’이라고 할까요.

사전을 보면 풀 빛깔을 가리키는 ‘풀빛’이라는 낱말은 있지만, ‘꽃빛’이나 ‘잎빛’ 같은 낱말은 없습니다. 우리 사전은 어떤 낱말을 얼마만큼 실을 때에 아름다울까 궁금합니다. ‘설빔’처럼 ‘잔치빔’이나 ‘돌빔’ 같은 낱말을 즐겁게 지을 수 있으나, 이런 낱말을 가꾸는 학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전을 살펴서는 ‘가연다·불쌍하다’나 ‘무섭다·두렵다’나 ‘곱다·아름답다’ 같은 한국말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말은 쉽습니다. 한국말사전에 실을 낱말은 아름다워야 싶습니다.

! 최종규 !

국어사전 만드는 일을 하고, 전남 고흥에서 ‘사진책도서관 함께살기’를 운영한다. 한국말을 슬기롭게 쓰는 길을 밝히고 싶어 『술에서 살려낸 우리말』, 『사자성어 한국말로 번역하기』,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뿌리깊은 글쓰기』, 『사랑하는 글쓰기』, 『생각하는 글쓰기』 같은 책을 썼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남녘말 북녘말

북에서는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지 않는다?

_ 조남호 / 명지대 국문과 교수,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



“안전한 ○○○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에 들어갈 말이 ‘고양이’인가요, ‘강아지’인가요?” 오래전에 국어 생활 상담 전화를 통해 받은 질문이다.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속담인데 막상 이 질문을 받으니 순간 헛갈렸다. ‘고양이’인 듯도 하고 ‘강아지’인 듯도 하였다.

어딘가에 올라가는 성향이 있는 동물은 고양이니 고양이가 답인가? 아니다. 그런 성향이라면 ‘안전함과 상관’이 없으니 ‘고양이’는 속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뜻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강아지, 그것도 안전한 강아지가 부뚜막에 올라간다면 평소와 다른 행동이다. 이 상황이 더 속담과 어울려 보이는데 그렇다면 ‘강아지’가 답인가?

미처림 따져 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속담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따지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일이었다. 굳어진 표현이니 정해진 단어들만 써야 한다는 제약이 속담에 없기 때문이다.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어떤 단어도 들어갈 수 있으며 말하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바꿀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고양이, 강아지’뿐만 아니라 ‘개’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점은 남과 북의 차이가 없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하나의 속담에서 변형이 된 여러 속담이 있듯이 북에서 간행한 『조선말대사전』에도 여러 속담이 있다. 예를 들어 ‘여든에 능참봉을 하니 한 달에 거동이 스물아홉 번이라’라는 속담이 있다. 오래 바라던 일을 이루었으나 실속은 없고 힘만 들 때 쓰는 속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모처럼 능참봉을 하니까 한 달에 거동이 스물아홉 번이라’, ‘칠십에 능참봉을 하니 하루에 거동이 열아홉 번씩이라’, ‘능참봉을 하니까 거동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라’도 있다. 단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뜻은 같다. 이 속담들이 『조선말대사전』에도 똑같이 있다. 남북의 맞춤법 차이로 ‘능참봉’ 대신 ‘릉참봉’이 쓰이고 띄어쓰기가 다른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속담은 많은 사람이 알고 또 쓰고 있다. 오래전부터 쓰였겠거니 할 수 있지만 이 속담이 사전에 실린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990년에 간행된 『우리말속담큰사전』에서 비로소 ‘안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나온 속담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는 이 속담을 볼 수 없다. 실제 쓰이기 시작한 시기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 보인다. 1970년에 간행된 신문에서야 비로소 이 속담을 발견할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북에서 간행된 사전에는 이 속담이 지금까지 올라 있지 않다. 2005년에 발간된 『조선속담성구사전』은 꽤 많은 속담을 수록하였는데 여기에조차 이 속담이 없다. 1992년에 나온 『조선말대사전』뿐만 아니라 2006년에 나온 그 사전의 증보판에도 없다. 그런데 북에서 나온 간행물에서는 이 속담이 쓰인 몇 예를 찾을 수 있었다.

남에서 나온 사전에만 있고 북에서 나온 사전에 없는 것이라면 가능성은 높다. 첫째, 실제로 쓰이고 있지만 아직 사전 편찬자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둘째, 남북이 갈라진 후에 남에서 생긴 속담일 수 있다. 속담은 옛 선조들만 만든 것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새로운 속담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제 쓰인 예가 있으니 북에서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한 속담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북에서는 널리 퍼지지 않은 속담인 것으로 보인다.

남에서는 널리 쓰이는데 북에서 간행된 사전에 실리지 않은 속담으로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가 더 있다. 『우리말속담큰사전』에서 비로소 볼 수 있다는 점이나, 신문 기사에서 1971년에 확인된다는 점 등 여러모로 ‘안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속담과 출현 양상이 비슷하다. 다만 지금은 이 속담만큼 그것의 변형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도 널리 쓰이고 있다. 이 속담은 북에서 나온 간행물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는 점으로 보면 남에서 새로 생겨 퍼진 속담일 가능성이 있다.

야근

_ 김완서 / 겨레말큰사전 책임연구원

예전에, 내가 꼬마였을 때 밤늦게까지 일하는 누나를 마중하러 엄마 손 잡고 버스 정류장에 나갔다. 13살이나 차이나는 누나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혹시나 귀여운 막냇동생에게 누나가 맛난 과자라도 사줄까 하는 마음이 엄마를 따라나섰던 것이다.

누나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데 한 아저씨가 나에게 와 물었다.

“너 늦은 시각에 여기 왜 나와 있는 거니?”

나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누나가 철야를 해서 누나 기다리려고 나왔어요.”

아저씨는 내 말을 듣고 피식 웃고는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가버렸다. 난 속으로 생각했다.

‘아저씨가 왜 웃는 거지? 이상한 아저씨네.’

그때의 내 언어 능력으로는 아저씨의 웃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저씨가 웃은 이유를 난 몇 년이 더 흐르고 나서야, 내 언어 능력이 좀 더 커지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철야를 한다는 것은 밤샘 근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누나가 야근을 해서 누나 기다리려고 나왔어요’라고 말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인데 철야라고 했으니 아저씨가 웃을 만도 했다.

결국 그날 나는 원했던 과자는 얻어먹지 못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누나를 무사히 집까지 데리고 왔다. 과자는 그로부터 며칠 후 누나의 월급날 먹었다.

야근, 대한민국 직장인이자라면 다 아는 말이다. 그리고 싫은 말이기도 하다. 퇴근하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니 썩 좋은 말은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공공의 적인 이 ‘야근’에 남북 차이가 있다.

- 직장 현장에 일근, 전(야근), 후(야근) 3교대 로동자들 2백 수십 명이 모여 종업원모임을 가지고 조태윤의 장례비와 그 가족에게 위자료를 지불할 것 등 공장 측에 들이댈 두 가지 요구조건을 가결하였다. 《리북명: 등대》
- 엑스까와폴에서는 칠성이네 조가 일하고 있었고 전(야근) 교대를 할 두 사람은 짬뽕을 구하기 위해 사업소에 갔었다. 《최학수: 열음장 밑에서 찾은 봄》
- 전에는 전 밤길도 혼자서 못 걷는 겁쟁이었어요. 그래서 {야근하는} 날이면 꼭꼭 오빠가 바래다 주곤 했어요. 《최재석: 불새》

이상은 북측의 용례이다. 그런데 용례를 보면 남쪽에서는 생소한 말이 있고 ‘야근’과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소한 말은 ‘전야근, 후야근’이고, ‘야근’과 같이 쓰이지 않는 말은 ‘교대, 바래다주다’이다. 남쪽에서는 야근을 하는데 있어 교대라는 말 자체를 같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야근을 하는 사람을 마중 나가서 바래다주지는 않는다. 이는 ‘야근’의 의미가 남과 북이 서로 달라 오는 말이고 그로 인해 북에만 생긴 말이 ‘전야근, 후야근’인 것이다. 이런 남북 차이는 남과 북의 사전 풀이에 잘 나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야근 퇴근 시간이 지나 밤늦게까지 하는 근무.	야근 ⇒ 밤대거리.
밤대거리 주로 광산에서, 밤낮 교대로 일하는 경우 밤에 일하는 대거리.	밤대거리 (낮과 밤으로 엇바꾸어 일하는 경우에) 밤에 일하는 대거리.
	전야근 (前夜勤) (밤일을 전후 두 교대로 나누어 할때) 앞의 밤교대나 그 근무.
	후야근 (後夜勤) (밤작업을 두 교대로 나누어 할 때에) 나중번의 밤교대 근무.

북에서 ‘야근’은 퇴근 시간이 지나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2교대로 근무할 때 낮이 아닌 밤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에서는 남과 달리 ‘야근 교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고 ‘야근’에 ‘바래다주다’가 같이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남과 북의 차이 때문에 ‘전야근’, ‘후야근’이라는 말이 북에서만 생긴 것이다.

‘야근’이 뜻하는 남과 북의 차이 때문에 북에 가서 “나 어제 야근해서 피곤해요.”라고 말하면,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동무 한숨도 못 잤겠네. 얼른 집에 가서 푹 주무시오. 동무의 건강이 조국 변혁에 이바지하는 길이니까, 얼른 가시오. 얼른.”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뜻풀이 깊고 더하기

채신머리와 치신머리

— 주영훈 / 겨레말큰사전 연구원

두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인의 발언을 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저, 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채신머리고} 뭐고 없구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저 양반 {치신머리도} 참. 저기서 저런 행동하는 게 무슨 득이 된다고...”

위 대화에서는 ‘채신머리’와 ‘치신머리’라는 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다. 이들 중 맞는 말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 앞서 답을 말하자면 두 사람 모두 옳은 표현을 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채신머리’는 <‘채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치신머리’는 <‘치신이’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두 단어는 ‘채신/치신’에 ‘-머리’라는 접사가 붙어 이루어졌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빌리자면 ‘-머리’는 비하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고 ‘채신/치신’은 모두 <‘채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실제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살펴보자.

채신 「명사」 ‘채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
치신이 「명사」 =채신.

‘채신’과 ‘치신’을 동의어로 풀이하면서 ‘채신머리’와 ‘치신머리’는 각각 다르게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채신’과 ‘치신이’들어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다른 단어들을 살펴보자.

먼저 ‘채신없다/치신없다’와 ‘채신사납다/치신사납다’의 풀이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동의어로 풀이하고 있다.

채신-없다 「형용사」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여 위엄이나 신망이 없다.
치신-없다 「형용사」 =채신없다.
채신-사납다 「형용사」 몸가짐을 잘못하여 꼴이 몹시 언짢다.
치신-사납다 「형용사」 =채신사납다.

그렇다면 접사 ‘-머리’가 붙은 ‘채신머리없다/치신머리없다’와 ‘채신머리사납다/치신머리사납다’의 풀이를 보자.

채신머리-없다 「형용사」 ‘채신없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치신머리-없다 「형용사」 ‘치신없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채신머리-사납다 「형용사」 ‘채신사납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치신머리-사납다 「형용사」 ‘치신사납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뜻풀이를 파고 들어가면 위 단어 쌍들은 동의어이지만 각각 풀이는 따로 하고 있다. 이는 단어마다 가진 말맛의 차이를 보이기 위해 각각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채신머리’의 뜻풀이는 고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신’에 ‘-머리’가 붙은 단어인데 <‘채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란 뜻풀이는 오류로 보인다. ‘채신머리’는 아래와 같이 풀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¹⁾

채신머리 [명] <채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
치신머리 [명] <치신>을 속되게 이르는 말.

요즘 세상을 들여다보면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채신머리없어 보이겠다 싶은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럴 때마다 채신머리든 치신머리든 뭐라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1) 아래 풀이는 글쓴이의 견해이다. 《겨레말큰사전》의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소식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편찬회의 재개 예정

지난 6월 25일 겨레말큰사전 남측편찬위원회는 북측편찬위원회와 개성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여 남북 공동편찬회의 재개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에는 한용운 편찬실장 등 실무진 3명이 참석하였으며, 북측위원회와 7월 말에서 8월 초 중국 선양에서 제21차 남북 공동편찬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는 남북 및 해외동포들이 사용하는 겨레말을 집대성하고 남북 언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공동회의가 개최되면 2009년 12월 마지막 회의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 열리게 된다.

남북 공동편찬회의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20차례 열렸다. 공동회의가 중단된 2010년부터는 양측이 각각 작업하며 공동 편찬 사업이 재개될 때를 대비해왔다.



겨레말이 만난 사람 · 우리말 돋보기 · 남녘말 북녘말 · 뜻풀이 깊고 더하기 · 겨레말 소식 · 겨레말 낱말 풀이

■ 겨레말 낱말 풀이

1			5	6		
2						
						10
	4					
					9	
3				7		
			8			

- ① '연극이나 음악, 무용 따위를 공연하거나 영화를 상영하기 위하여 무대와 객석 등을 설치한 건물이나 시설'을 뜻한다. 북에서는 이곳에서 연극이나 가극을 공연하지만, 영화는 이곳이 아닌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 ② '간장에다 쇠고기를 넣고 조린 반찬'이란 뜻으로 북에서는 '장졸임'이라고 쓴다.
- ③ 문어과의 하나로 여덟 개의 발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빨판이 있다. 흔히 이것을 가지고 연포탕이나 비빔밥을 해 먹기도 한다. 북에서는 '마른 ○○'로 쓰이는 등 '오징어'를 가리키는 말이다.
- ④ '도넛'의 북한어로 '밀가루에 사탕가루, 소절, 닭알 같은 것을 섞어서 반죽한 다음 가락지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빵'을 뜻한다.
- ⑤ '노크'의 북한어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기척을 내기 위하여 똑똑 두드리는 일 또는 소리를 뜻한다.
- ⑥ 북에서 '체육종목경기에서 팀의 승리를 좌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노는 선수'를 뜻한다.
- ⑦ 북에서 (식당 등의 곳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봉사일군'을 뜻하는 말이다.
- ⑧ 가구주와 같은 말로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이란 뜻이다. 북에서는 이런 뜻 외에 일정한 집단이나 분야의 사업과 살림을 책임지고 맡아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 ⑨ 이마나 뒤통수가 남달리 크게 튀어나온 머리통, 또는 그런 머리통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북에서는 '남북머리'라 부른다.
- ⑩ '혈액 속에 들어 있는 붉은색의 고형 성분'이란 뜻으로 붉은피톨로도 불린다. 북에서는 다듬은 말로 '붉은피알'이라고도 한다.

정답확인 >

1	극		5	손	6	기	척		
2	장	조	림			둥			
						선		10	적
		4	가			수			혈
			락				9	짱	구
3	낙	지				7	접		
			빵		8	세	대	주	
						원			